

## 2017년 칠레와 페루의 경제 협력 증진 전망

김영철 교수  
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

### ■ 주요 내용

- 2017년 7월 페루와 칠레가 양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, 양국 정상은 11월 29일 칠레 산티아고에 가진 회담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점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통합을 확대하기로 함.
- 양국 정상은 경제, 무역, 광업, 과학, 기술과 혁신, 국경 통합, 마약밀매 근절, 문화, 안보, 국방, 관광과 자연재해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음.
- 양국은 태평양 동맹을 통해 무역관계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특히, 아시아-태평양 지역에 성공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함.

KIEP **대한경제정책연구원**  
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
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
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
TEL 044-414-1076 E-MAIL [emerics@kiep.go.kr](mailto:emerics@kiep.go.kr)  
<http://www.emerics.org/> <http://www.kiep.go.kr/>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 
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



## 1 이슈 현황

### ☐ 칠레와 페루는 태평양 연안의 경쟁국으로 오랫동안 경쟁 관계를 유지해 옴.

- 19세기 말 페루, 볼리비아와 연합군이 칠레와 '태평양 전쟁'을 벌였으나 패배. 전쟁 패배의 대가로 페루는 풍부한 어획량을 가진 태평양 해역을 칠레에 양도
  - 칠레는 1952년 '산티아고 선언'을 통해 페루와 칠레, 에콰도르가 남태평양 해양자원 개발 및 보존에 관해 협의하며,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주권 범위를 확대
  - 페루는 이에 반발해 2008년 칠레를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 제소하였고, 2014년 1월 판결에 따라 칠레는 1950년대 초반부터 관할해온 태평양 해역 3만 8천㎢ 가운데 2만 1천㎢를 페루에 넘겨주게 되었음.
  -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양국 간의 관계 변화가 진행되었으며, 이번 양국 정부가 2017년 7월 회담으로 이어졌음.
- 태평양동맹(PA)을 통해 칠레와 페루의 양국 관계가 증진됨.
  - 양국은 멕시코, 콜롬비아와 함께 2012년 6월 태평양동맹 경제블록을 출범
  - 태평양동맹은 인력과 상품, 서비스,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, 에너지, 인프라 통합, 관세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협상으로 중남미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
  - 2015년 기준 태평양동맹 4개국의 국내총생산(GDP) 합계는 중남미 전체의 35%에 해당하는 2조 달러(한화 약 2,333조200억 원)에 달함.
- 태평양 동맹 출범 이후 오랜 경쟁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 및 경제 분야에서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.

표 1. 태평양 동맹의 주요 경제 지표

(단위 : 백만, USD십억)

	칠레	콜롬비아	멕시코	페루	태평양동맹	중남미	비중
인구	18	48	127	31	224	611	37%
명목GDP	241	287	1,144	189	1,861	5,361	35%
구매력 기준 명목GDP	411	666	2,202	349	3,628	9,605	38%
1인당 GDP	22,870	13,800	17,340	11,210	-	-	-
상품 및 서비스 수출	72	40	373	41	526	1,148	46%
상품 및 서비스 수입	68	67	428	46	609	1,212	50%

자료 : M. Angeles Villarreal(2016), "The Pacific Alliance: A Trade Integration Initiative in Latin America", p.10.



## 2

## 양국의 협력 현황

### 2009년 칠레와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.

- 칠레와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은 1998년 양국이 경제 보완협정을 확대하여 2006년 8월 22일 체결된 이후 2009년 3월 1일에 발효됨.
  - 협정에 따라 2016년 양국 간의 무역상품에 대한 면세가 시행됨.
  -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칠레와 페루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의 강화와 무역의 다변화와 확대 촉진,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교역증대, 자유무역 지대에서 법적 지위와 조건 보장,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, 상호무역의 왜곡 회피를 목적으로 발효됨.
- 자유무역협정 효과
  - 페루의 대 칠레 수출은 전체의 3.9%에 해당하는 137만2천 달러(한화 약 16억57만 원), 반면 페루의 대칠레 수입은 전체의 3.6%에 이르는 1백만 달러(한화 약 11억6,660만 원)임.
  - 칠레는 페루 수출 대상국 9위를 차지하고 있음.
  - 또한 페루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6.85%에 해당하는 것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음.
-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칠레의 페루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, 산업별로는 금융 부문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광업이 차지했음.
  - 칠레는 페루를 대체 상품 생산지로 보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임.

표 1. 1980~2014년 칠레의 대페루 직접투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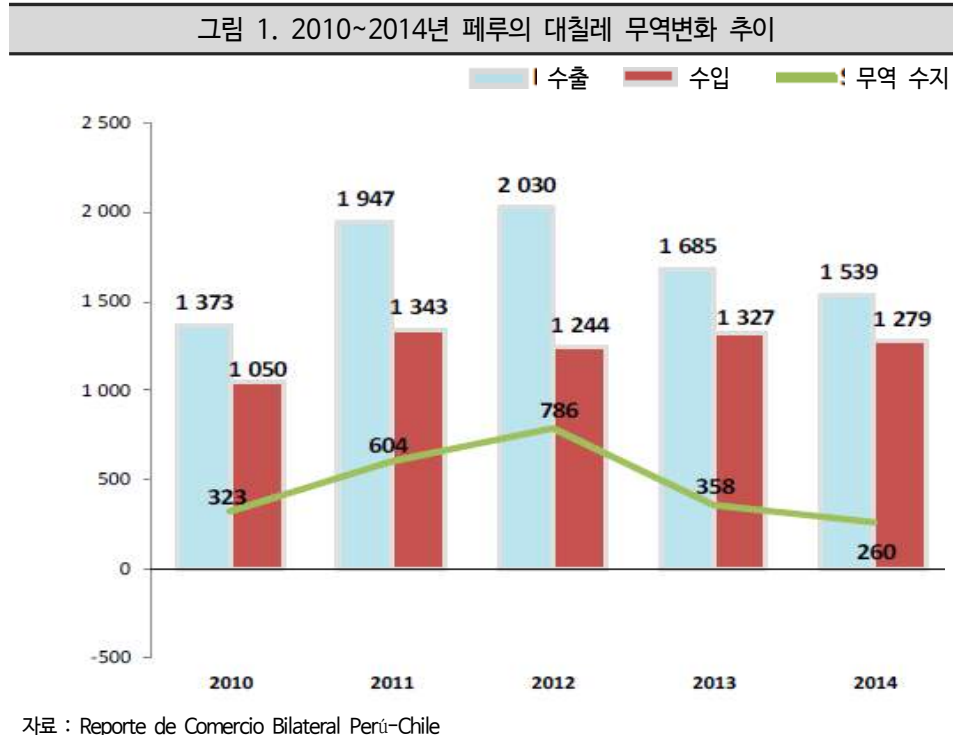
(단위 : USD백만, %)

분야	금액(US\$ 백만)	비율	투자기업
무역	138.1	9.6%	Sally Perú Holdings S.A.
건설	81.9	5.8%	Salpa Perú S.A, Aventura Plaza S.A.
에너지	148.7	6.9%	-
금융	651.8	45.7%	Forum Comercializadora del Perú S.A.; AFP Habitat S.A.; Holding Nitratos S.A. Inversiones Altair S.A.C; Santander Consumo del Perú S.A
산업	177.3	12.5%	Cementos Portland S.A.C, Esmetal S.A.C
광업	192.1	13.5%	Compañía Minera Miski Mayo S.A.C
서비스	64.8	4.6%	Afinmuebles S.A.C, Inmobiliaria Alquife S.A.C.
관광	17.3	1.2%	Consorcio Hotelero Global del Perú S.A.C. Dreams Corporation S.A.C
기타	14.9	0.3%	-
총계	1,486.9	100%	-

자료 : Reporte de Comercio Bilateral Perú-Chil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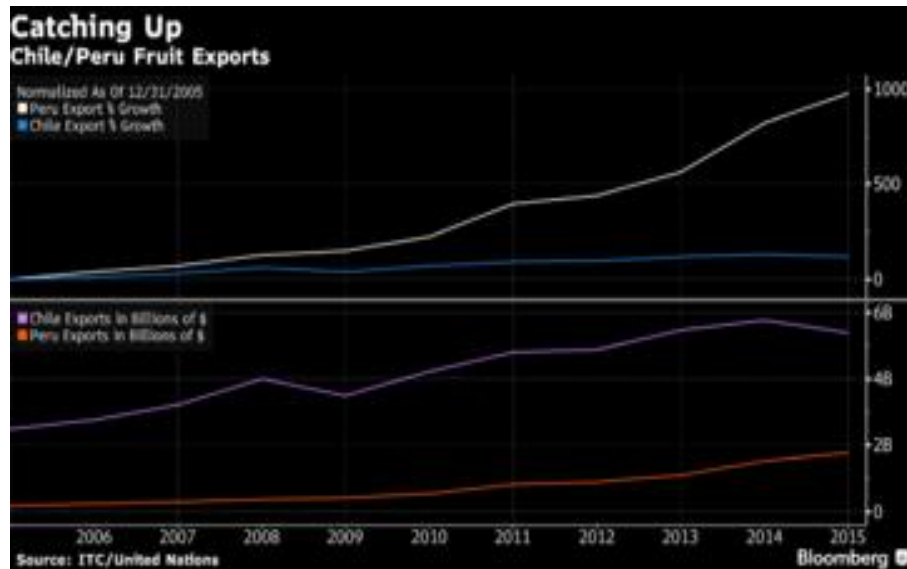
-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의 무역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.
  - 페루의 대칠레 수출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수입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있음. 따라서 무역수지 규모는 큰 폭으로 하락했음.



- 페루는 시장 경험이 많은 칠레를 모델로 하여 최근 시장개방, 법인세 인하,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서 민간기업 투자 촉진과 규제철폐를 실시함.
- 페루는 칠레가 선점하고 있는 세계구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음.
  - 칠레가 지난 3년간 구리 생산량이 주춤하는 틈을 타서 상반기에 50%까지 따라잡음.
- 칠레의 과일 수출에도 도전하고 있음.
  - 페루의 과일 수출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한 18억 달러에 달함.
  - 이미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칠레와 경쟁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, 과일 수출의 많은 양이 수확 시기가 보완적인 칠레로 이루어지고 있음.



그림 2. 페루와 칠레의 과일 수출 추이

자료 : Bloomberg<sup>1)</sup>

- 이미 페루의 섬유산업은 칠레의 섬유산업 규모를 넘어섰음.
  - 칠레 섬유 수출은 생산 비용 증가와 경쟁으로 2011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 반해 페루는 지난 15년간 10배 이상 증가했음.
  - 유로아메리카의 펠리페 알라르콘(Felipe Alarcon)은 페루가 칠레의 90년대와 같다고 평가함.
- 이와 같이 양국 관계는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무역을 중심으로 관계가 확대되고 있음.

### 3 전망과 시사점

**☒ 칠레와 페루 협력 증진으로 태평양 동맹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력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.**

-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양국의 협력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대응 조치로 보여짐.
- 태평양 동맹이 중남미 지역 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. 이런 과정에 아시아-태평양과의 관계 증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1)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16-07-28/>



- 2016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, RCEP)에도 양국이 가입함으로써 트럼프 취임 이후의 경제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짐.

**출처**

Latin America Weekly Report, Reporte de Comercio Bilateral Perú-Chile THE BRICS Post 및  
보도자료